

# 대한민국 최초 목포문학박람회 '성료'

### 4일간 전시·강연·공연 등 109개 프로그램 진행 차별화된 소재로 '문학도시' 구축 목포 품격 높여

대한민국 4대 관광도시이자 예비문화도시로서 목포시가 새롭게 선보인 '2021 목포문학박람회'가 예향(藝鄕)의 품격을 높이며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목포, 한국 근대문학의 시작에서 미래문학의 산실로'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목포문학관 일대, 월드컵, 평화광장 등에서 전시, 강연, 공연 등 109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문학박람회는 시민, 학생, 관광객, 외국인 등 각계각층 남녀노소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내렸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코로나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치르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돼 기쁘다. 목포문학박람회를 찾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학박람회는 문학을 주제로 한 전국 최초의 박람회라는 점에서 큰 관심

과 기대를 모았다. 목포시는 김유진, 박화성, 차범석, 김현, 김진섭, 황현산, 최인훈 등 우리나라 문학의 큰 업적을 남긴 문학인이 태어나거나 성장하고, 활동했던 역사를 밑바탕으로 삼고 전례가 없는 행사를 시도했다.

소재를 목포 문학에 그치지 않고 남도, 우리나라로 영역을 확장하는 한편 과거에 국한되지 않고 현재와 미래까지 시선을 두고 프로그램들을 구성했다. 또 문학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골고루 선보이면서 종합적인 문화예술의 장으로 박람회의 골격을 짜냈다.

상당수 시민들은 "목포와 인연이 깊은 훌륭한 문학인이 많고, 이들이 우리나라 문학사에 미친 영향을 알게 된 박람회였다. 목포의 훌륭한 문화예술 자원에 자긍심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관객들도 "목포 문화예술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박람회였다. 목포에서 우리나라로, 과거에서 미래로 펼쳐지는 우리나라 문학을 엿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전시, 공연, 강연 뿐만 아니라 잔디밭에서 문학으로 힐링하는 웰니스 테라피존도 코로나 시대에 매우 좋았던 프로그램이었다"고 크게 만족해했다.

시는 박람회를 통해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명성을 더욱 확고히 구축했고,

특히 음악, 미술, 춤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던 문학의 역량과 우수성을 알리며 '문학도시'라는 브랜드를 얻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종식 시장은 "문학박람회는 문학도시로서 가능성과 역량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면서 "문학박람회의 성과와 보완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문학도시로서의 면모를 드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박정수기자

# 함평군, 대한민국 국향대전 자원봉사단체장 간담회 실시

함평군은 2021년 대한민국 국향대전 개최를 앞두고 지난 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자원봉사 단체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함평군은 11일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됐던 국향대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함평군 여성자원봉사회를 비롯한 새마을부녀회, 푸른함평지킴이, 적십자봉사회, 코스모스회 등 관내 주요 자원봉사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17일간의 국향대전 동안 지역 사회단체 회원 650여명은 군립미술관, 자연생태관, 다육식물관 등 총 6개 프로그램에 참여해 축제 질서유지,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단체장들은 코로나로 지친 군민과 관광객들이 풍요로운 가을 국향을 만끽하며 '안심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함평=김광훈기자

# 영광군, 코로나19 긴급민생지원 시행

영광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부담이 가중된 관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1인 자영업자 및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보험(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가 지원대상이며 사회보험료 부과액의 50%를 3개월분 지원한다. 1인 자영업자란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

자를 사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이다.

또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자(월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지원대상으로, 2021년도 부과된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중 두루누리 정부지원금(80%)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액 중 최대 3개월분을 지원한다.

영광=서희권기자

# 영암군, 간부공무원 대상 폭력예방 통합교육 실시



영암군은 지난 10월 6일 왕인실에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밝고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김양임 강사를 초빙하여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사이버 폭력, 데이트 폭력 등 신종 성폭력을 포함한 4대 폭력 예방, 여성친화,

가족친화 등의 주제를 담은 맞춤형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하였다.

성(性)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 및 인식 개선으로 관리자로서 책임과 역할 인식을 통해 상호 배려와 존중으로 밝고 건전한 직장 문화를 만들고자 마련됐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통해 성희롱 없는 건강한 일터 만들기과 더불어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영암=조대호기자



# 신안군, 장병도 낙도어업인 안전센터 준공식

신안군은 지난 6일 신안군 하의면 장병도에서 내외 귀빈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병도 낙도어업인 안전센터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2016년부터 조성해온 어업인 안전센터 사업은 해양수산부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는 1억 2천만원(국비 50%, 군비 50%)이었으나, 군 실정에 맞는 건축물 신축을 위해 군비를 더 추가하여 총 1억 5천여만원으로 더욱 튼튼하고 주민들에게 편리한 센터를 완성하였다.

이번에 준공한 장병도 어업인 안전센터는 건축면적 62.58㎡(19평)으로 해양수산부 표준모델과는 달리 튼튼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채택하였으며 내부는 어업활동 후 편히 쉴 수 있는 휴게실과 어구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입구에 배치하여 설계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어업인 센터가 어업활동뿐만 아니라 마을주민 화합에 도움 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되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신안=이명주기자

# 무안군, 불법현수막 정비·지정계시대 확충 나서

무안군은 미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현수막 정비와 지정계시대 확충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계시대 부족으로 인한 불법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올 하반기에 지정계시대 10곳을 설치할 예정이다.

지정계시대 확충되면 총 74곳에 444개의 현수막을 계절할 수 있게 되

어 광고주의 편의를 도모하고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 게시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현수막의 원활한 철거를 위해 현수막 실명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그동안 군과 읍면에서 불법현수막을 철거해 왔으나 앞으로는 현수막 우측하단에 표시기간과 광고사 상호,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하여 광고주와 광고업체에

서 직접 현수막을 철거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군과 읍면 역할을 나누어 읍면에서 불법현수막 발견 시 광고주에게 7일 이내 기간을 주어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군에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민원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불법현수막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다.

군은 지난 1일부터 20일간의 행정

무안=이기성기자